

“내생에도 평생 불교 위해 살거요”

‘직책’ 물러나 강의·연구에 몰두 목정배 교수

가을을 재촉하는 가랑비가 오락가락하는 ‘목요일’이었다. 서울 약수동 약수법사(藥水法寺)에서 목정배 명예교수(68·사진)를 만났다. 그날도 목 교수는 35년동안 계속해 온 ‘목요일’ 강의를 준비중이었다.

오후 1시 반 강의가 시작되기 전, 수강생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2층 강의실 옆에 딸린 서재에서 마주 앉은 목 교수는 “뭐가 궁금한데? 차 한 잔하고 시작해요”라며 기자를 반겼다. 변함없이 크고 경쾌한 목소리는 이전 동국대 교정을 거침없이 가로지르던 시절과 다를 바 없었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총장 임기 마쳐

30여 년간 한국 불교학의 거목으로 이름을 날렸던 그는 최근까지 몸담았던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의 총장 임기를 끝마쳤다.

대학원대학은 이번 여름 처음으로 석사학위자 7명을 배출시켰다. 주로 불교응용학문 분야의 전공이 많은 대학원대학은 불교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이다.

“내 역할이 끝났으니 미련 없이 자리를 털고 나왔지. 이제 어디 여태까지 않고 부담 없이 하고 싶은 연구를 더할 수 있으니 잘된 일이야.” 휴가분한 표정의 목 교수는 최근 동국대 대학원과정 지도하면서 대한불교법사회 이사장으로서 재가법사 양성에 전념하고 있다.

목 교수는 1937년 경남 사천에서 태어났다. 모태 신앙으로 중 3때 이미 부산 대가사에서 불교학생회를 조직하는 등 불교와의 인연은 어린시절부터 각별했다. 경북 스님 문화에 두 달간 있었다. 58년에 동국대에 입학해 75년 불교학과 전임교수가 됐다.

불교교리사와 계율학의 권위자로 한때 불교계 가장 영향력 있는 학

자로 손꼽히기도 했다. 중앙대 부총장 박범훈 교수, 동국대 불교학과 신성현 연구교수, 차차석 박사, 원광대 선주선 교수, 제주교대 고대만 교수 등 그가 길러낸 불교 석·박사가 수십 명이고, 불명을 지어준 이만 1500명이 넘는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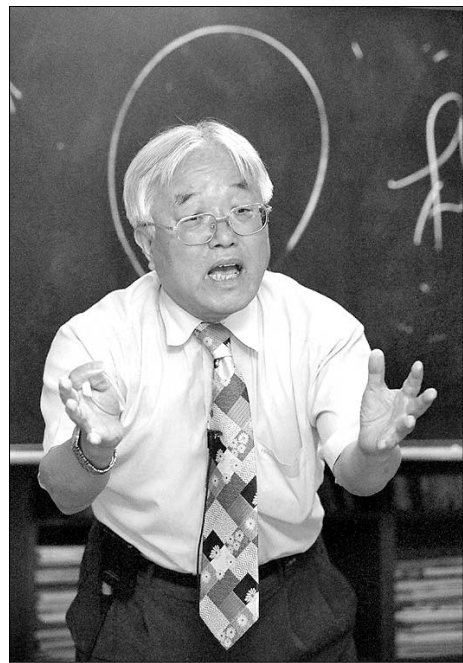
동국대가 있는 목척산을 오른 지 50여년이 다돼가지만 자신에게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고 한다. 매주 수요일에는 여전히 동국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지도하기위해 출강한다.

‘천재’ 또는 ‘괴각’으로 불렸을 만큼 동국대 최고의 명물(?)이었던 그는 늘 “내가 죽으면 화장한 뒤 동국대 캠퍼스에 내 뼈를 뿌려줘요. 그럼 인연되는 불종자를 하나 만나 환생해, 내생에도 다시 불교를 위해 평생을 살다 같거요”라고 말한다. 동국대는 그의 분신이고 그는 동국대의 분신이다.

●35년 재가교육에 매진

목 교수가 재가불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 대한불교대학에서 부터다. “대원 불교대가 처음 생긴 그때는 장경호 할아버지가 제실 때야”라며 당시 영암 스님, 성호 스님, 조병기, 김동화 박사 등과 함께 했던 시절을 회고 했다.

“그때 내가 강사로는 가장 어린 꼬마였는데, 내 강의가 목요일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목요일은 목정배를 만나요” 목요강좌 35년째



“목요일엔 목정배를 만나요” 목요강좌 35년째

교리중심 사상사·고구려 불교사 연구, 찬불가 정리 원력

일에는 목정배를 만나요 하면서 떠돌고 다녔거든. 그렇게 해서 내 강의가 유명해졌지, 허허.”

목 교수는 최근 법사불교대학의 수강생들에게 자신이 35년간 강의했던 내용 가운데 가장 정수라고 생각하는 원효의 3대 중요(宗要)를 묶어 가르치고 있다. 3대 중요는 해동보살이라 일컫는 원효 스님을 사표 삼아 불교의 공사상을 바로알고 일승보살을 이뤄 아미타정토를 발원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목 교수는 사실상 자신의 재가교육을 회향하는 의미라고 했다.

목 교수가 직접 정리한 원효의 3대 중요는 <대혜도경중요(大慧度經宗要)> <법화경중요(法華經宗要)> <무량수경중요(無量壽經宗要)> 3권이다. <대혜도경중요>는 반야사상, <법화경중요>는 법화사상, <무량수경중요>는 아미타사상이 그 핵심이다. 앞의

두 권은 이미 마쳤고 오는 연말까지 <무량수경중요> 강의를 모두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일생을 매달려온 재가 교육은 지금의 목 교수를 있게 한 큰 힘이다. 목 교수의 강의를 듣는 이들은 보통 10수년 이상 수강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웬만한 한문 원전 어렵지 않게 읽어 내려가는 수준급 불자들이 대부분이다.

●고구려불교사 체계적으로 정리

목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법사불교대학의 강의를 끝내는 대로 준비 중인 3가지 원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불교교리사상사’를 정리 하고 있다. <불교윤리개설><불교교리사><한국문화와 불교><대승보살계사상> 등 자신의 책들 가운데 불교교리를 집대성한 ‘사상사’ 중심의 저서를 새로 발간할 계획이다.

또 고구려 불교사에 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시도한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구려, 발해지역의 불교사를 관심 있는 젊은 학자들과 함께 연구하기 위해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석남, 해자, 담정 뿐만 아니라 불교전래 이전의 스님들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과 북한에 산재해 있는 고구려 유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일단 베이징 중앙민족대학의 황유복 교수와 공동으로 종교적, 문화적 고구려 불교사 연구를 위한 구체적 계획 준비하고 있다. 이미 장춘, 선양, 장백 등 옛 고구려의 일부 지역을 다녀왔다.

마지막으로 내친김에 한국 불교의 찬불가를 다시 정리하려는 욕심도 내고 있다. 9월 16일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명창 최영숙의 창작 소리극 ‘아! 도라산’이 개막됐다. 중앙대 박범훈 교수가 곡을 만들고 목 교수가 가사를 붙였다.

시인으로도 유명한 목 교수가 직접 작사한 노래 한들이 아니다. 연습하기만 한 예식용 찬불가를 좀더 활기차고 장엄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평소 애주가에 애연가로 유명한 목 교수는 얼마 전 이 두 가지 모두를 끊었다. 비결을 물었다. 먼저 “술은 ‘돈주(頓酒)’로 끊었지”라며 거침없이 대답했다. 아무리 그래도 담배는 끊기 어렵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담배는 ‘돈오(頓悟)’로 끊었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꾸했다. 그래도 지인들과 술집을 가게 되면 조금은 하지 않겠느냐고 물으니 “아! 이제는 손이 안가. 흡습(薰習)이 완전히 끊긴 게야”라며 짧게 답했다. 요즘 세상에 술, 담배를 끊는 것이 뭐 대단한 자랑일까 싶었지만 그는 잠선이든 뒤든 ‘돈오’만이 일체적 여래지로 가기 위한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싶었던 모양이다. 순간 기자는 그 짧은 대답 속에서 한 평생 깨달음의 방편을 찾기 위해 정진해온 노학자의 담담한 자기고백을 대하는 듯했다.

글=조용수 기자·사진=고영택 기자

“개원 차질 없도록 준비 철저히 할 것”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장 내정 이석현 교수



이사회를 열어 이석현(사진) 교수의 임용을 승인하고 일산불교병원의무원장 겸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으로 내정했다.

이 원장은 일산불교병원장 내정이 확정되자 “동국대 뿐만 아니라 불교계 전체의

동국대는 내년 상반기 개원을 앞두고 있는 일산불교병원에 이석현 전 고려대 구로병원을 내정했다. 학교법인 동국대는 9월 20일 제203차 이사회를 열어 이석현(사진) 교수의 임용을 승인하고 일산불교병원의무원장 겸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으로 내정했다.

이 원장은 1944년 전북 완주 출신으로 62년 경기도, 68년 서울대 의대를 마쳤다. 대한민국의학회, 대한스�포츠의학회 회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조용수 기자

“불광운동 확산 위해 노력할 터”

서울 불광사 교무 맡은 원욱 스님



끼지 않을 겁니다.”

비구니 원욱 스님(사진)이 최근 서울 불광사(주지 지종)의 교무소임을 맡았다. 도심 대형사찰에 그것도 비구 스님이 주지인 곳에서 비구니 스님이 주요 3직중 하나인 교무를 맡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원욱 스님이 교무소임으로 발탁 된 배경에는 광덕 스님

“불광사 대중들에게 수행과 교육에 있어서 비구·비구니, 남녀 재가자가 모두 동등한 관계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광덕 스님의 혜명(慧命)을 올바로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아

“불광사 대중들에게 수행과 교육에 있어서 비구·비구니, 남녀 재가자가 모두 동등한 관계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광덕 스님의 혜명(慧命)을 올바로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불광사 교무는 보통 큰절의 3직 교무와는 조금 다르다. 일반적으로 교무는 절의 대소사 전반을 총괄하는 실무책임자인데 반해 불광사 교무는 재가 신도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불광교육원의 실질적인 원장 역할을 맡고 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일주 문



모태’를 봉행했다.

이차돈 순교 추모재

파주 평화통일사 회주 일선 스님(이차돈 선양회장)은 9월 18일 통일사 대웅전에서 ‘성자 이차돈 순교 추모재’를 봉행했다.



(02)739-1080

창립 4주년 기념법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노옥선 회장은 10월 9-10일 김천 직지사사에서 창립 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성북구민 걷기 대회’를 개최했다.

성북구민 걷기 대회

서울 성북구사암연합회 장 정수 스님은 성북구청과 공동으로 9월 19일 북한산 정릉유원지에서 ‘북한산 성북구민 걷기 대회’를 개최했다.



원 법회’를 봉행했다.

교통문화원 후원법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김주본 회장은 9월 17일 대구 보현사에서 ‘김주본 교통문화원연구소 개소 후 원 법회’를 봉행했다.

제1회 낙태(유산)아 무보시 49일 천도 대법회

아빠, 엄마 저희에게도 새생명을 주세요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정자와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난자의 만남으로 46개의 인간염색체를 가진 뚜렷한 인간 그것은 바로 태아입니다. 이것은 흥담무도 토기도 아닌 오직 인간일 뿐입니다. 나의 잘못된 행으로 비롯된 무서운 살생 그것도 바로 나의 자식을 살생한 과보를 그냥 무태만 하시겠습니까.

모두 참회 합시다.

그리고 허공을 떠돌고 있을 나의 어린 생명을 삶의 모습으로 되돌려 줍시다.

주지 지흥 합장



- ❖ 일시 : ●입재 - 10월 14일(음) 9월 1일 오전 10시
매주 목요일 (10월 21, 28일 11월 4, 11, 18일) 재봉행
●회당 - 11월 26일(음) 10월 15일(동안결재)
※ 당일 대중공양 보시를 받습니다.
- ❖ 기도비 : 무료
- ❖ 접 수 : 지혜정사 종무실, 수성 포교원 지혜선원
- ❖ 문의전화 : (054)975-7766, 0104 (053)752-0108
- ❖ 위 치 : 팔공산 한티재입구 기성삼거리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1005번지

법정수행 청진도량 팔공산 지혜정사

49재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만약 돌아가신다고 가정해 보면, 그 시점에서 생각해 볼 때 가장 절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입예시 1

- 계 약 자: 현수 스님(45세, 비구)
- 피보험자: 현수 스님(45세, 비구)
- 주보험료: 1,000만원(월보험료: 44,500원, 10년납)
- 가입이유: 다비 비용

가입예시 2

- 계 약 자: 김미자 (59세, 보살)
- 피보험자: 김미자 (59세, 보살)
- 주보험료: 1,000만원(월보험료: 53,500원, 10년납)
- 사망시 수익자: 관음사
- 가입이유: 주지스님에게 시다림과 49재 부탁

가입예시 3

- 계 약 자: 지정암
- 피보험자: 해광 스님(64세, 비구니)
- 주보험료: 1,000만원(월보험료: 112,300원, 5년납)
- 사망시 수익자: 지정암
- 가입이유: 은사스님 다비와 49재 준비
- ※ 현재 총납 금산 세대산 일몰사 다비

문의: 1544-0108

www.15440108.com

사원 모집

주아담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아담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본인 거주지
- 문 의: 050-5244-0108

마지막 法門입니다. 茶毘는 스님의 마지막 法門입니다.

아담법석 다비 상조회는 많은 스님들이 입적하시면 다비를 원하고 계시지만 여러가지 여건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아담법석은 지정다비장을 설치하여 스님께서 마지막 법문을 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